

손연재 “내년엔 백조로 변신해요”

연기곡 ‘백조의 호수’ 선정
음악 맞는 독창적 동작 훈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대사인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18·세종)가 2013시즌 우아한 ‘백조’로 변신한다. 러시아에서 새로운 작품 구성을 마치고 지난 13일 귀국한 손연재는 다음 시즌 리본 기술을 연기할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골랐다. 후프 음악으로는 푸치니의 ‘투란도트’, 볼 음악으로는 재즈곡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 곤봉 음악으로는 파트리치오 부안스가 부른 ‘벨라 벨라 시뇨리나’를 선정했다. 올시즌 ‘호두까기 인형’(후프), ‘라임라이트 메인테마’(볼), ‘재

즈 머신’(곤봉), ‘나비 부인’(리본)을 선택했던 것처럼 클래식 두 곡과 재즈 한국을 선택했고, 유쾌한 경음악을 추가했다. 리듬체조는 종목별로 1분30초가량 프로그램 길이에 맞춰 편집된 곡이 연주된다. 다음 시즌부터는 리듬체조 규칙이 대폭 바뀌기 때문에 음악이 중요해지고, 음악과 동작이 얼마나 조화로운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손연재는 엘레나 리프르도바 코치와 함께 공동 네 종목 모두 새로운 곡을 선정했고, 음악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동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귀국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연재는 26일부터 태릉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한편 ‘체조 요정’ 손연재는 지난 20일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기쁘고 영광스럽다.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란다”며 “선수들이 잘 하는 나이가 있는데 대학생 때 하는 유니버시아드는 거의 올림픽 수준으로 봐도 될 정도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매길로이 1위 등극’ 올 골프계 최고 뉴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세계 골프계의 새로운 1인자로 떠오른 것이 올해 골프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로 선정됐다. 야후 스포츠는 매길로이의 부상(浮上), 버바 왓슨(미국)의 마스터스 행운의 샷 등 2012 세계 골프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5대 뉴스를 선정해 25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매길로이는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4승을 거뒀고 평균 타수(68.87타)와 상금(804만 7952달러) 부문 1위에 올랐다. PGA 투어, 유럽투어,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 영국골프기자협회의 올해의 선수상을 석권했고, 세계 랭킹 1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야후 스포츠는 “2000년대는 타이거 우즈

의 시대였지만, 이제 매길로이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우즈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 그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말로 매길로이가 골프계의 새로운 1인자로 떠올랐음을 알렸다. ‘올해의 샷’으로 꼽힌 왓슨의 마스터스 토너먼트 연장 2차전 두번째 샷도 5대 뉴스에 포함됐다. 당시 루이 웨스트호이젠(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연장전을 치른 왓슨은 연장 2차전에서 티샷을 페어웨이에서 한참 떨어진 숲 속으로 보냈다. 왓슨은 나무가 시야를 가린 상황에서 웨지볼 이용해 그림 같은 홀 샷을 날려 그린 위에 볼을 올렸고, 파 퍼트에 성공하며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대호 스프링 캠프 불참 WBC 직행

“내년엔 더 좋은 성적 내겠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뛰는 ‘거포’ 이대호(30·사진)가 내년 팀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않고 월드베이스클래식(WBC)으로 직행한다. 나카무라 준 오릭스 운영팀 과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대호가 사 이관에서 개인 훈련을 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오릭스 스프링캠프를 거치지 않고 WBC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일본 스포츠지들은 이대호가 내년 2월1일부터 10일까지 팀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뒤 WBC 한국 대표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나카무라 과장은 “일부 언론에서 오보를 낸 것 같다”며 “이대호는 일본에 들르지 않



고 사이판 훈련을 마친 뒤 바로 WBC 한국 대표팀에 직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릭스로서는 이대호가 중요한 선수라 스프링캠프에 참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대호가 좋은 컨디션으로 일본 개막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WBC가 끝난 뒤 팀에 합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팀에서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호는 올 시즌 후 자신에게 ‘50점’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다짐했다. /연합뉴스



내달 3일 서울에서 일일호프를 여는 이원석·안치홍·김현수 한기주 선수(왼쪽부터).

한기주 이웃사랑 ‘스트라이크’

안치홍·이원석·김현수 선수 동참 소아암 어린이이 돕기

서울서 일일호프·자선경매

KIA 타이거즈의 한기주·안치홍, 두산 베어스의 이원석·김현수가 이웃사랑을 위해 동참한다. 이들은 내달 3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압구정동 푸틴 주점 심봉에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일일호프 및 자선경매’ 행사를 연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일일호프, 일일호프와 경매 수익금을 노인복지시설인 성애원에 기부했던 이들은 이번에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정성을 모으기로 했다. 한기주는 “(이)두환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일호프를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며 “앞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구단에서 주관해 자선 일일호프와 경매 행사가 열리기도 하지만 선수가 개인적으로 나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지난 행사에서 한기주가 중심이 돼 이웃들에게 나서자 팀 후배인 안치홍과 두산의 절친 김현수 그리고 동성고 1년 선배인 이원석이 든든한 파트너가 됐다. 지원군으로 등장했던 김주원 KIA 응원 단장도 경매 진행을 맡아 350여만원의 수익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도 김 단장은 선수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라포바-이휘재 매길로이-보즈니아키

‘깜짝 커플’ 테니스 빅매치

28일 잠실체육관서

28일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Windows8 월드컵’ 테니스 대회는 사라포바와 보즈니아키 초청 경기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리아 사라포바(2위·러시아)와 캐럴라인 보즈니아키(10위·덴마크)는 현재 여자프로 테니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라고 할 만큼 기량과 인기를 고루 갖췄다. 사라포바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테니스뿐 아니라 전 종목을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한 여성 스포츠 선수다. ‘러시안 뷰티’라는 별명처럼 188cm의 큰 키에 매력적인 금발, 도도한 표정 등은 남성 팬들은 물론 여성 팬들의 가슴까지 두근거리게 할 정도다.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윌블던, US오픈 등 4대 메이저를 석권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고 세계 랭킹 1위도 21주간 지켰다. 상대인 보즈니아키는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지만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계 1위 자리를 67주간이나 보유했던 실력파다. 메이저 우승이 없어 세계 1위에 있을 때

졸골 ‘진짜 1위 맞느냐’는 논란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아직 22세로 어린 나이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남자프로 세계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교제 중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둘이 이벤트 경기에서 맞붙는 것은 올해가 벌써 세 번째다. 사라포바와 보즈니아키는 이벤트 경기를 벌일 때마다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해 이번 서울 대회에서는 어떤 행동으로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할지 기대된다. 먼저 올해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매길로이가 코트로 끌려나와 즉석에서 사라포바와 ‘성(性) 대결’을 벌였다. 1세트를 사라포바에게 내주고 2세트 역시 게임스코어 4-5로 끌려가던 여자친구 보즈니아키의 ‘구원 요청’을 받고 코트로 내려온 매길로이는 사라포바의 키를 넘기는 로빙 공격으로 범실을 유도해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아예 ‘보질로이(Wozzilroy·보즈니아키와 매길로이)의 이혼을 합성한 신조어’ 커플과 사라포바-방송인 이휘재 커플이 혼합 복식 경기를 치르기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Special
신양고객감사 특별 상설 뷔페

신양호텔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문의 및 예약
 062)221-4101~3
 062)228-8000

특별 상설 뷔페 요금

성인 ₩30,000

아동 ₩20,000

(부가세 별도)

신양 스페셜 서비스

점심 와인 한잔
저녁 미니케익 제공

일시 2012.12. 24~12.25/12.31/새해 1.1

장소 호텔 1층, 스카이라운지